



##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2014.05.12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 40% 이상이 주거관련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주택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과중하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 노년의 근심: 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서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어떤 근심거리를 지니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기준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금은 어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그림1).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많은 고민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로써 응답률이 49%에 달한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오복의 하나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늙는 것이 서러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젊을 때보다는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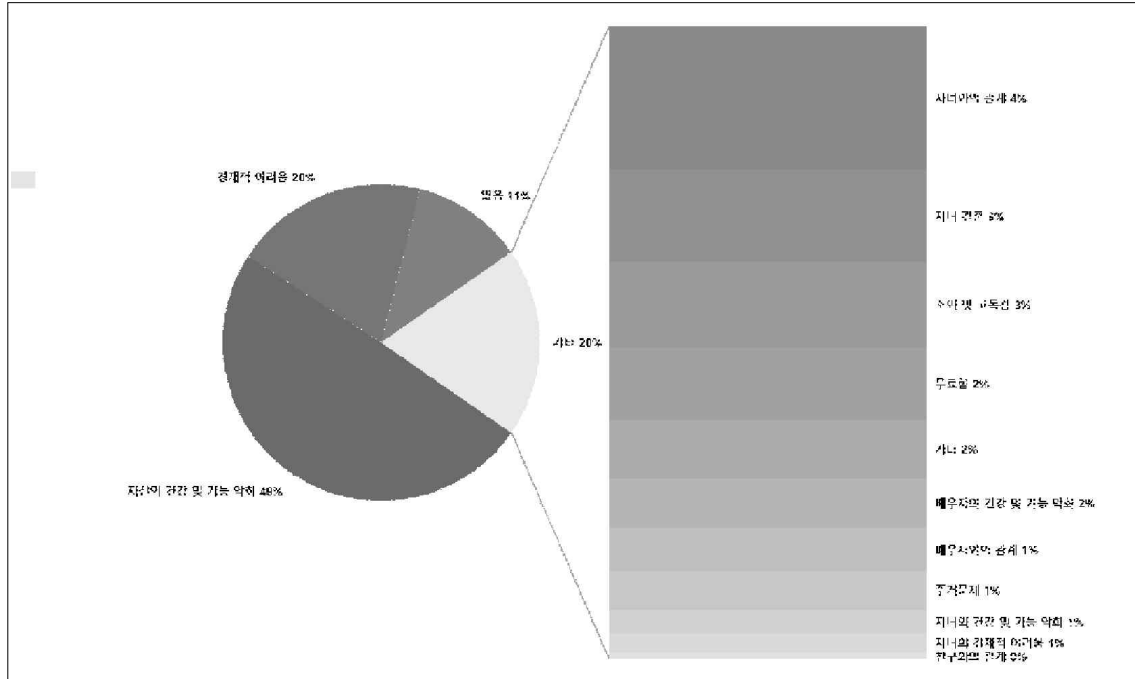
다음으로 많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써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도 안 좋는데 돈까지 부족하다면 그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건강과 맞바꾸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서 젊은 날을 버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가 결국은 건강문제이니 그러하다.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근심 없음]이었다(11%). 건강과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어른들 표현대로 ‘등 따스고 배부른’ 만사가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외에 20% 정도를 차지하는 기타 근심거리로는 자녀와의 관계



(4%), 자녀 결혼(3%), 소외 및 고독감(3%), 무료함(2%),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2%), 배우자와의 관계(1%) 등이었다. 의외로 주거문제는 응답률이 1%에 그쳤다. 어르신들에게 주거문제는 중요한 근심거리가 아닌 것일까.

그림 1. 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의 근심거리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년 기준)

\*: 동부 거주

### 노인가구의 가계부담: 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에는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2).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 중 40% 이상이 [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거문제]는 근심거리가 아니지만 [주거관련비]는 버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선뜻 알기 어렵지만, 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경제적 문제이지 [집]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문제를 주거권이나 복지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인식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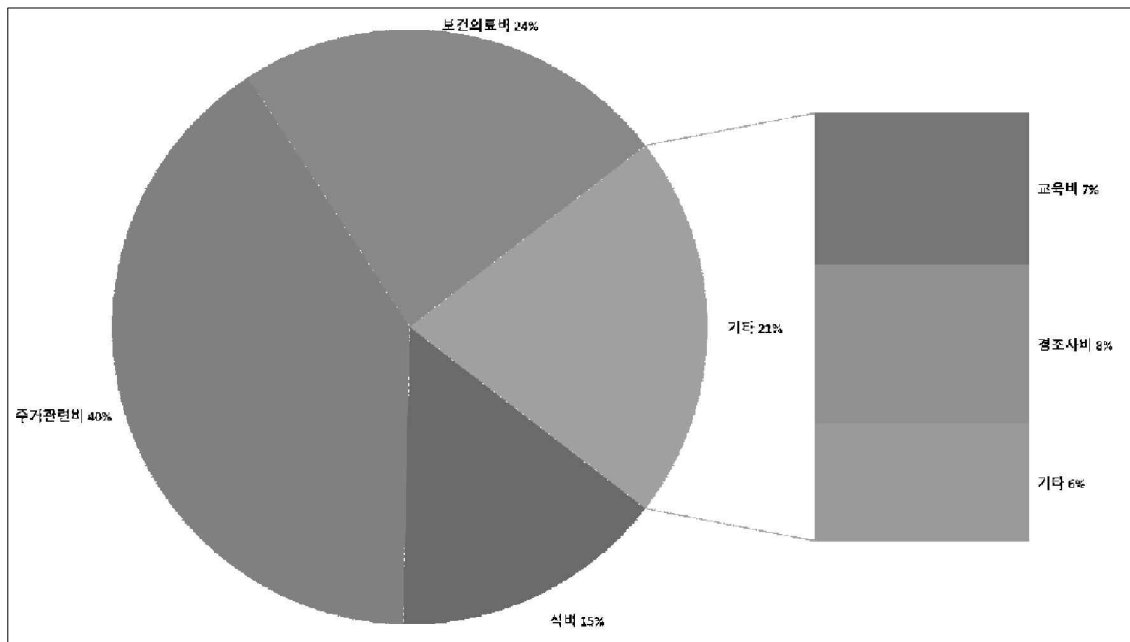
두 번째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보건의료비]로써 2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건강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결과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도 보건의료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의료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로 많은 답변을 보인 것은 응답률 15%의 [식비]이다. [앵겔의 법칙]에 따르면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난한 것이라 한다. 먹을거리를 위한 비용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지만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무한정 만족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것은 빈곤한 노인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의 가계부담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년 기준)  
\*: 동부 거주

### 노인복지수요: 주거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적다?

여러 고민과 경제적 부담 중에서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주기를 바라는 것, 예전 어른들 표현을 빌려 '나라님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은 무엇일까. 「노인실태조사」를 살펴 보면(그림3), [소득보장]이 응답률 32%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이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식비 등이었으니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보전해주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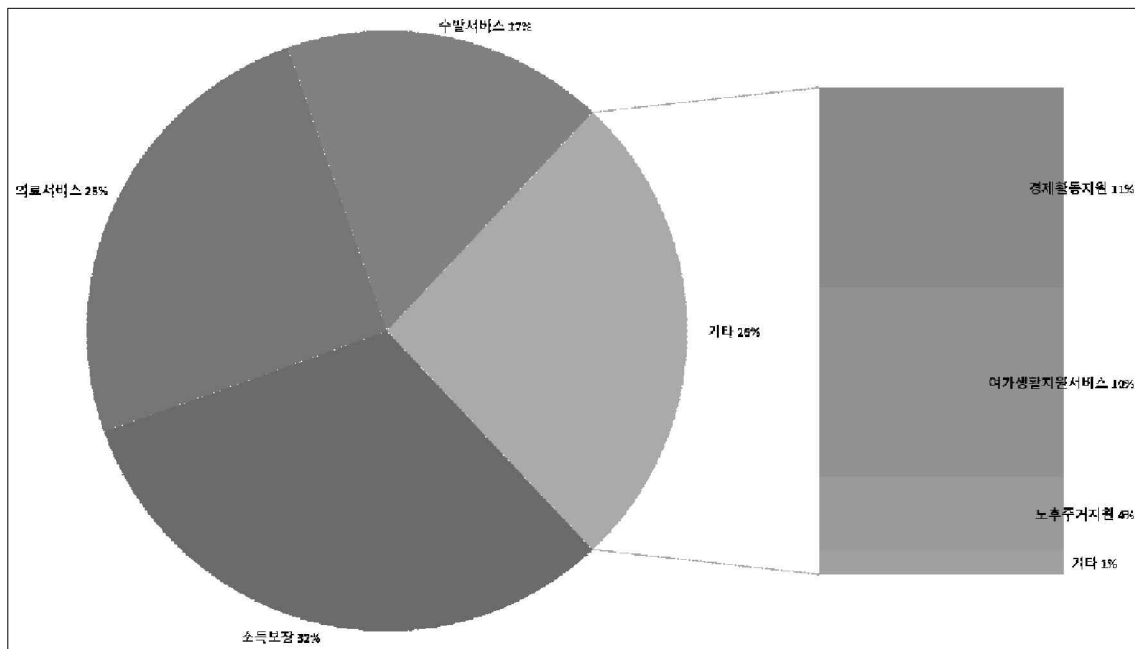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있었던 항목은 [의료서비스]로써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건강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 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복지정책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많은 답변을 보인 항목은 [수발서비스]로써 1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 많은 부모님들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복지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응답률을 합치면 42%이므로 소득보장의 32%보다 크다. 실제로는 건강과 관련된 복지수요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지원 11%, 여가생활지원서비스 10%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노후주거지원의 경우 4%에 머물렀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이 주거관련비였다는 것과 연관지어보면, 소득보전을 통해서 주거관련비 부담을 더는 것에 인식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받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된 것은 후자의 복지서비스가 전무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년 기준)

\*: 동부 거주

###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면 해결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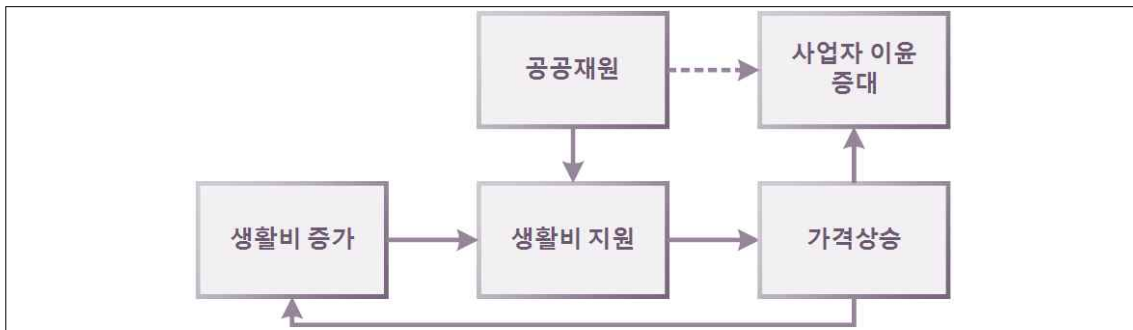
정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문제의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중적 정책,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시일이 걸릴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여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이다. 대중적 복지정책은 현재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많은 노인가구들이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각종 급여 및 바우처 등을 통해 소득보장이나 생활비 절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이나 비용보조의 경우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공공재원으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세상이, 돈 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법이다. 보다 근원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4. 소득 및 비용 보전 대책의 문제점: 가격상승과 비합리적 자원배분



### 고비용 주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악순환

「노인실태조사」에서 모든 항목을 통틀어 많은 응답을 보인 것 중에 하나는 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근원을 따져보려면 가장 큰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매듭을 풀어 보는 것이方便일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이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큰 문제에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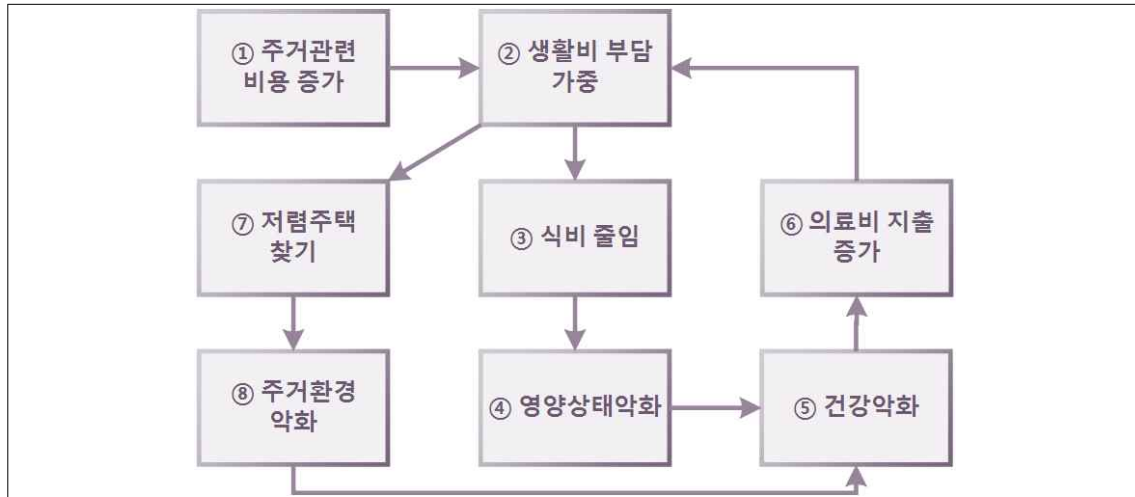
그림5는 높은 주거비용이 어떻게 다른 복지문제들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①주거관련비용이 증가하면, 노인가구의 경우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②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어떤 가구에서는 ③식비를 줄여서, 질이 나쁜 식재료를 주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④영양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 등이 약화되면서 ⑤건강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⑥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②생활비가 가중될 것이다. 이 때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⑦저렴한 주택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주택들은 냉난방이 안 되거나, 채광이 안 좋거나, 습기가 많아 곰팡이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환기가 되지 않아서 공기가 탁한 경우 등 ⑧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되면 환경변화에 취





약한 고령자의 경우 ⑤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다시 ⑥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②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주거관련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5. 고비용 주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삶의 질 악화 메커니즘



### 주거문제는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가구의 주요 근심거리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출발점이자 목표일 것이다. 한편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은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식비 등이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소득보장 등을 통해 경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 40% 이상이 주거관련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주택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요소이다. 비싼 임대료 등을 억지로라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과중하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5월 1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